

FKI ISSUE PAPER

2005. 6. 3 (제 21 호)

2005년 하반기 경제전망

목 차

〈요 약〉

I. 경기저점 논쟁과 하반기 소비, 투자 전망(1)	1
II. 경기저점 논쟁과 하반기 소비, 투자 전망(2)	3
III. 주요지역의 경제동향과 수출전망	6
IV. 환율전망과 바람직한 환율정책	7
V. 유가전망과 에너지 확보전략	9
VI.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10

<요 약>1)

1. 경기저점과 하반기 소비투자 전망

- 최근 경기종합지수 흐름을 볼 때, 현재 경기저점을 통과하고 있거나 저점부근을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4분기 들어 점차 확장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
- 하반기 들어 내수회복이 빨라지면서 성장률도 4.2%로 높아져 연간으로는 3.7%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삼성경제연구소)
- 향후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하반기부터는 내수와 수출이 함께 성장에 기여하지만 지루한 수준의 경기회복이 계속되어 GDP성장률은 당초 전망 수준(4%)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국은행)
 - 다만 고유가, 환율하락, 북핵문제 등의 불확실성이 경기회복의 위협요소로 잠재
- 하반기 중 정부는 거시정책을 통한 경기부양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한 건전한 ‘투자기회창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함

1) 본 자료는 2005.5.31(화) 본회 주최로 개최한 ‘2005년 하반기 경제전망’ 세미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2. 주요지역의 경제동향과 수출전망

- 2005년 수출은 전년 대비 12~15% 증가한 2,840~2,9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로는 중화권(22.9%), 중동아프리카(17.9%) 지역에서 20% 내외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며, 북미(10.2%), 구주(14%), 일본(8.0%), CIS(14.5%), 아시아대양주(10.2%), 중남미(9.0%)에서도 10% 내외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품목별로는 자동차부품(21.8%), 무선통신기기(28.5%), 가전제품(21.6%)이 지난해에 이어 2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

3. 환율전망과 바람직한 환율정책

- 최근 달러화 반등에도 불구하고, 미 경상적자·재정적자 개선전망 불투명으로 달러약세 추세는 지속될 전망
 - 하반기 중 원화는 북핵 및 국내경기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경상·자본수지 흑자 지속, 위안화 절상 가능성으로 강세를 지속
- 향후 수출위주·경상수지 흑자 지속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해외투자 활성화 및 자본유출 규제정책을 완화하는 등 외환수급 불균형 해소 정책을 추진
 - 아울러 급격한 환율변동, 투기자본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대응하되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의한 자율적 환율결정 시스템 유지

4. 유가전망과 에너지 확보전략

-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는 2004-2020년간 세계수요 증가율 1.9%를 초과하는 연평균 2.2%에 달할 전망
- 중동정세가 악화될 경우 2005년 두바이산 기준 유가가 \$43~\$51/b로 고유가 추세를 유지할 수도 있음
-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및 해외자원개발 확대, 에너지 행정조직 강화, 에너지 조기경보체제(EWS) 운영, 인접국과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 고유가 대비 상시체제 구축

5.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재정은 연내에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연초에 설정한 계획을 차질 없이 조기집행 할 예정(종합투자계획 제외)
- 수도권 규제를 풀어 대기 중인 국내 대기기업의 수도권 공장 투자 (3조 6,000억원)를 선별하여 허용하는 등 투자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면 관련규제를 애로별로 해소
- 건설경기는 지연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3개 신도시의 개발 애로를 해결하여 부양
- 서비스산업의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개방화 및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서비스 산업을 육성시켜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

I. 경기저점 논쟁과 하반기 소비, 투자 전망(1)2)

- 최근 경기종합지수 흐름을 볼 때, 현재 저점을 통과하고 있거나 저점부근을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4분기 들어 점차 확장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
 - 3월중 경기선행지수가 전년 동월대비 3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이러한 경우는 1970년대 이후 9차례 발생하였는데 8차례가 경기확장기로 전환
- 우리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는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수출이 둔화되고 있어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음
 - 하반기 중 민간소비는 2001년~2002년의 과소비가 어느 정도 조정 완료되고 심리개선, 가계연체율 하락 등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겠으나 고용개선 지연, 고령화대비 저축 증대 등으로 회복속도는 매우 완만할 전망
 - 설비투자 역시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충분한 투자여력과 상용차의 노후차량 비중증가, 원화절상에 따른 수입자본재 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코스트 하향안정화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나 해외투자 증가, IT 산업의 국내투자 유발효과 미흡 등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기조 유지로 건설부문 부진은 계속될 것이나 고속도로 건설 등에 힘입어 토목부문은 증가세 확대 전망. 관건은 종합투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 여부

- 향후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하반기부터는 내수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어 GDP성장률은 당초(2004년 12월) 전망 수준(4%)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내수는 완만한 회복이 기대되고, 수출은 작년보다는 작은 10% 정도의 성장이 기대되며 양자가 균형 있게 성장에 기여할 것임
 - 다만 고유가, 환율하락, 북핵문제 등의 불확실성이 경기회복의 위협요소로 잠재

II. 경기저점 논쟁과 하반기 소비, 투자 전망(2)³⁾

- 내수, 투자는 완만하게 회복되나 수출증가 둔화로 경기부진 지속
 - 도소매 판매 증가 등으로 지난 2년간 부진했던 내수는 1/4분기 들어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
 - 기업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비투자도 1/4분기 중 전년 동기대비 4.3% 증가하여 2002년 4/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
 - 그러나 환율하락, 고유가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수출이 급속히 둔화되고 있으며 수출기업들의 채산성도 악화
 - 최근의 경제는 수출증가가 내수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 단절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 복원력이 저상된 상황
- 하반기 들어 내수회복이 빨라지면서 성장률도 4.2%로 높아져 연간으로는 3.7%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1/4분기 0.6%p에서 4/4분기 3.7%p로 상승하는 반면,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3.0%p에서 2.1%p로 둔화
 - 가계부채 문제 개선 등으로 4/4분기 들어 소비가 본격적 회복세를 보일 전망
 - 투자역시 내수회복 기대, 노후시설 대체수요 등으로 하반기 중 비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본격화할 전망
 - 수출은 원화절상 지속, 선진국 경기둔화 등으로 증가율이 한자리수 대로 떨어질 전망

3) 발표자 : 정문건 전무(삼성경제연구소)

- 이외에 하반기 중 물가는 3%대 초반의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나 금리는 상승세로 전환
 - 실업률도 일자리 창출능력저하로 하반기 중 개선여지가 별로 없음
- 하반기 한국경제의 회복여부는 대외여건 변화에 크게 좌우될 것임
 - 국제원유가가 배럴당 50\$ 이하에서 안정되고 원화가치가 실질실효 환율 기준으로 더 이상 고평가 되지 않는다면 하반기 내수의 점진적 회복에 힘입어 성장률은 4%선으로 반등 기대
 - 만약 원유공급 차질로 국제유가가 다시 한차례 상승하고 위안화의 평가절하 지연으로 원화가 지속적으로 절상압력에 시달리게 되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3.7%에서 그칠 것으로 우려
- 하반기 중 경기회복세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여야함
 -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현재 거시경제측면에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
 - 금리정책은 주택시장 과열우려로 내릴 수도, 그렇다고 경기부진으로 올릴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
 - 재정정책의 경우도, 금년 4월까지 연간 재정의 약40%가 조기집행 되었으나 경기는 나아지지 않음
 - 반면, 경기부진으로 세수확보율이 작년에 비해 크게 떨어져 금년의 재정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 할 우려 존재
 - 그렇더라도 하반기 추경을 마련하지 않으면 재정은 긴축적이 되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음

- 하반기 중 정부는 거시정책을 통한 경기부양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한 건전한 ‘투자기회창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역차별적 규제는 전면 철폐하고 기업 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미래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게 해야 함
 - 그렇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을 화회하는 저성장국면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임

Ⅲ. 주요지역의 경제동향과 수출전망⁴⁾

- 2005년 수출은 전년 대비 12~15% 증가한 2,840~2,9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원화 강세, 고유가 등 수출에 부정적인 요소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한국 상품에 대한 해외수요는 꾸준히 증가

- 지역별로는 중화권(22.9%), 중동아프리카(17.9%) 지역에서 20% 내외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며, 북미(10.2%), 구주 (14%), 일본 (8.0%), CIS(14.5%), 아시아대양주(10.2%), 중남미(9.0%)에서도 10% 내외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품목별로는 자동차부품(21.8%), 무선통신기기(28.5%), 가전(21.6%)제품이 지난해에 이어 20%이상 높은 증가세 시현 전망
 - 반도체(3.0%), 자동차(6.0%), 철강(9.4%) 등은 작년에 비해 수출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
 - 금년 초 섬유쿼터 폐지의 영향으로 섬유류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마이너스 수출 증가율(-4.1%)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4) 발표자 : 한준우 본부장(KOTRA 정보조사본부)

IV. 환율전망과 바람직한 환율정책5)

- 최근 달러화 반등에도 불구하고, 미 경상적자·재정적자 개선전망 불투명으로 달러약세 추세는 지속될 전망
 - 달러화 약세와 강세요인 혼재로 향후 박스권내 등락을 거듭할 것이나 기초적으로는 약세가 진행
- 달러약세를 위한 절상압력의 주요 타깃이 아시아권 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원화강세를 초래
 - 아시아의 대미교역비중은 21.8%에 불과하나 무역흑자비중은 50%
- 하반기 중 원화는 북핵 및 국내경기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경상/자본수지 흑자 지속, 위안화 절상 가능성으로 강세를 지속
 - 경상·자본수지 흑자 지속과 수출입 업체들의 Lead & Lag 지속 등으로 당분간 달러 초과공급 지속 전망
 - 그러나 원화강세 폭이 과다하고 경기회복이 미진하다는 외환시장에서의 심리적 요인으로 원화의 추가적 강세는 제한적
- 향후 수출위주 성장정책·경상수지 흑자 지속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환율정책 추진
 - 환율의 자원배분 왜곡, 무역마찰 야기 가능성, 외환보유고 유지비용 증가, 국내 유동성 확대 등 부작용이 점증
 - 이에 따라 해외투자 활성화 및 자본유출 규제정책을 완화하는 등 외환수급 불균형 해소 정책을 추진

- 아울러 급격한 환율변동, 투기적 자본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대응 하되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의한 자율적 환율결정 시스템 유지

V. 유가전망과 에너지 확보전략⁶⁾

-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는 2004~2020년간 세계수요 증가율 1.9%를 초과하는 연평균 2.2%에 달할 전망
 - 그러나 동기간 중 중국의 급격한 수요 증가로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예정으로 에너지 확보가 큰 문제로 대두
 - 이에 대응하여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개선,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보급, 해외자원개발 진출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이 필요
- 한편으로 2005년 중동정세가 악화될 경우 2005년 두바이산 기준 유가가 \$43~\$51/b로 고유가 추세를 유지할 수도 있음을 감안, 아래 정책을 추진
 -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및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규모 소요재원 확보 방안 강구
 - 에너지 담당 독립부서 신설 또는, 산자부내 에너지 기능강화(자원에너지 본부제, 담당차관제) 등 에너지 행정조직 강화
 - 에너지 조기경보체제(EWS) 운영, 인접국과 공동대응체제 구축 등 고유가 대비 상시체제 구축
 - 국민적 공감대 확대를 위한 민간의 적극적 참여 유도 등 에너지 문제의 국가적 Agenda화

6) 발표자 : 김진오 부원장(에너지경제연구원)

VI.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⁷⁾

- 하반기 경제정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방향성만 제시
 - 반기별 경제정책은 각 정부기관 및 주요 민간단체의 의견을 취합하여 6월 및 12월말에 결정되므로 현시점에 언급하기 어려움
- 재정은 연내에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연초에 설정한 계획을 차질 없이 조기집행 할 예정(종합투자계획 제외)
 - 종합투자계획은 연내 6조원 규모를 집행하려했으나 연내에는 1~1.5조원, 나머지 4.5~5조원은 내년 상반기에 집행될 공산이 큼
 - 따라서 종합투자계획의 경제적 효과는 내년 상반기 중 가시화
 - 정부공사 등의 대규모 투자계획 중 연내 집행이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조기집행
 - 농업기반공사 3,000억 조기집행, 도로공사 5,000억 투자 등
- 투자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면 관련규제를 애로별로 해소
 - 수도권 규제를 풀어 대기 중인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투자(3조 6,000억원)를 선별하여 허용할 방침
 - 현재 수도권에는 외국인투자 25개 첨단업종의 경우에만 공장신설을 허용
 - 지자체와 협조, 투자대상 지가를 안정화하고 토지이용규제 완화
 - 중소기업, 벤처, 장비 및 부품소재 산업 등 고용창출 및 경기확산 효과가 높은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

7) 발표자 : 재정부 박병원 차관

- 건설경기는 지연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3개 신도시의 개발 애로를 해결하여 부양시킬 예정
 - 중단된 국책사업: 새만금간척지(0.75조원), 천성산터널(2.5조원) 등
 - 3개 신도시(김포, 의정부, 파주) 농지전용문제 등 개발 장애요인 제거

- 소비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시켜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
 - 국내소비는 회복강도가 미약한데도 해외소비는 골프, 관광, 교육 등을 중심으로 매년 20~25%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
 -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으며 개방화 및 구조조정 실시

이 자료는 본회 경제조사팀 이재수 조사역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3771-0495 FAX : 3771-0110 E-mail : enigma1js@fki.or.kr